



팀2002 풋살 친선경기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풋볼센터지움에서 열린 '팀2002 풋살 친선경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2 한일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팀2002'는 지난 2002 한일월드컵 국가대표 23인과 지도자들로 구성된 멤버다.

“한국, 조별리그 탈락 가능성 높다”

영국 텔레그래프, 러시아월드컵 참가 32개국 전력 자체 분석

F조 독일·멕시코 16강 점쳐...테일러미러도 한국 26위 평가

2018 러시아월드컵에 나설 한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냉정하다.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또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러시아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의 전력을 자체 분석했다. 이 매체는 한국을 두고 “1986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대회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2002년 4강이 아닌 2014년처럼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짚었다. 한국은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F조에서 경합을 벌인다. 3개팀 모두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보다 앞선다. 핵심 선수로는 손흥민(도르트넘)을 꼽으면서 “아시아인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자”라고 꼽혔다. “최고 수준의 축구를 경험한 손흥민과 기성용, 이경용 등 프리미어리그 트리오팀에 많은 것이 달렸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래프는 독일과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의 토니 크루스탈 마드리드, 멕시코의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웨

스트햄 유나이티드), 스웨덴의 에밀 포르스베리(라이프치히)를 각 팀의 주요 선수로 지목했다. 영국 데일리미러는 자신들이 선정한 월드컵 파워랭킹 순위를 공개하면서 한국을 32개국 중 26위로 평가했다. 이 매체 역시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이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멕시코와 스웨덴이 각각 15위와 16위에 랭크됐다.

뉴시스

축구대표팀 ‘캡틴’ 기성용, 오늘 전설이 된다

보스니아전 센추리클럽 가입 유력

축구대표팀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이 마침내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출전)에 입성한다. 기성용은 6월1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친선경기 출전을 앞두고 있다. 소집 후인 지난달 24일 허리 통증으로 회복에 주력하던 기성용은 30일 훈련에 복귀했다. 보스니아전이 2018 러시아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국내 평가전만큼 큰 변수만 없다면 기성용은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보스니아전은 기성용의 100번째 A매치다. 19세이던 2008년 9월 요르단과의 친선경기에서 데뷔한 기성용은 10년 간 쉽없이 달린 끝에

센추리클럽 가입이라는 경사를 누리게 됐다. 대한축구협회가 집계한 A매치 100경기 이상을 뚫은 한국 선수는 최다 출전자인 차범근, 홍명보(이상 136경기) 등 모두 13명이다. 기성용은 14번째 주인공이 된다. 99경기 중 선발 출전은 94경기나 된다. 풀타임 역시 60경기로 비율이 높다. 평균 출전 시간은 81분이다. 대한축구협회는 기성용이 경기에 나설 경우 하프타임을 이용해 센추리클럽 가입 축하 행사를 열기로 했다. 기성용의 영문 이름 ‘Ki’에 착안해 숫자 100이 표시된 황금열쇠를 증정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출정식을

겸한 보스니아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경기 후 열릴 출정식에는 드론 레이싱 세계챔피언 김민찬(KT)의 드론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허정무, 최순호, 서정원, 최진철, 이운재 등 역대 월드컵 무대에서 맹활약한 선배들이 참석해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선수들은 대형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한바퀴 돌며 러시아에서의 선전을 다짐한다. 입장객 전원에게는 스마트폰 플래시에 붙이는 ‘레드라이트 패키지’를 지급해 출정식 때 붉은빛 물결을 만들기로 했다. 선수 라커룸은 팬들의 응원메시지로 장식되고, 선수들이 입장하는 터널은 붉은색 LED로 꾸며진다. 또 호랑이, 워더레즈(We, The Reds), 치우천왕 등 이번 월드컵과 대표팀을 상징하는 대형 통천을



경기장에 선보인다. 보스니아전 입장권은 인터파크 티켓과 KEB하나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뉴시스

김학범 감독 “와일드카드 선발은 골격 갖추고 결정”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AG)에 참가하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본 골격부터 갖춘 뒤 와일드카드(23세 이상 선수)로 뭉친 선수들을 확정하겠다”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학범 감독은 30일 파주 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하기 앞서 “이번 소집에 들어간 선수들이 대표팀 근간이 되는 골격이다”라고 말했다. 김학범 감독은 “90% 이상은 여기 선수 중심으로 꾸린 뒤 와일드카드를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감독은 3명을 선발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에 대해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와일드

카드 선발이 가장 유력한 손흥민(도르트넘)에 대해서는 “손흥민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 모두 생각하는 그대로다”라며 손흥민을 뽑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승우(베르디)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김 감독은 “이승우의 활약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승우는 28일 몬드라스의 평가전에 선발 출전해 후반 15분 손흥민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김 감독은 19세 이하 대표팀이 출전한 톨롱컵을 참관한 뒤 30일 파주에 돌아왔다. 김 감독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을 포함해 K리그에서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조영욱(서울)과 전세진(수원 삼성)의 몸상태를 체크했다.

“감독 바꿨는데” 일본, 월드컵 출정식에서 가나에 0:2 패배

니시노 감독, 데뷔전에서 호된 신고식

지난달 전격적인 사령탑 교체로 어수선했던 일본 축구가 2018 러시아월드컵 출정식에서 가나에 혼났 다. 일본은 지난달 30일 저녁 일본 요코하마 닛산스태디움에서 벌어진 가나의 A매치 평가전에서 혼다 게이스케(파추카), 가가와 신지(도르트문트) 등을 모두 투입했지만 0-2로 완패했다. 이날 경기는 일본 자국에서 열리는 마지막 실전 무대로 선수단의 러시아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자리였다. 또 니시노 아키라 신임 감독의 데뷔전이었다. 일본축구협회는 지난달 러시아월드컵 본선행을 이끈 바히드 할릴호지치 감독을 경질하고 협회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던 니시노 아키라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3월 유럽 원정의 부진과 선수단 내 소통 문제를 감독 교체 이유로 들었지만 할릴호지치 감독은 일본

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반박하는 등 뒷말이 무성했다. 때문에 가나전은 여러 소음을 잡 재음과 동시에 니시노 체제의 월드컵 출격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일 전이었다. 러시아에 가지 못하지만 가나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50위로 일본(60위)보다 우위다. 일본은 비 내린 날씨처럼 울었다.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재에 잠정적으로 평가받던 패스플레이도 원활하지 못했다. 일본은 전반 8분 토마스 파르티(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프리킥 세트피스에서 골을 허용한데 이어 후반 6분 엠마누엘 보이팅(레안테)에게 페널티킥으로 추가 실점했다. 출정식을 마친 일본은 유럽으로 떠나 스위스(6월9일), 파라과이(6월12일)와 평가전을 치르고 본선 일정에 돌입한다. 폴란드, 세네갈, 콜롬비아와 함께 H조에 속했다. 베이 스텀프는 러시아 카잔이다.

뉴시스



추신수, 8경기 연속 안타...삼진도 셋

타율 0.259·텍사스, 시애틀에 7-6 승리

‘추추 트레이너’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8경기 연속 안타를 날렸다. 추신수는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8경기 연속 안타, 17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삼진을 3개나 당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말티 출루 행진은 9경기에서 멈췄다. 시즌 타율도 0.259로 낮아졌다. 1회초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로 물러난 추신수는 4회 선두타자로 나와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도 시애틀 선발 제임스 팩스턴을 상대로 스탠딩 삼진을 당했다. 추신수는 팩스턴의 최고 97마일(시속 156km)에 이르는 직구에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2-5로 끌려가던 7회 무사 1루에서 첫 안타를 뽑아냈다. 추신수는 비런 투수 라이언 록의 초구(94마일 직구)를 노려쳐 우전안타를 만들어냈다. 이어 노마 마자라의 적시타 때 득점에도 성공해 역전승에 기여했다. 시즌 34득점이다. 그러나 8회 타석에서도 삼진으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7-6으로 승리했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 텍사스는 시즌 23승 34패를 기록했다. 뉴시스

오승환,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오승환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7회말 등판, 1이닝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 투구를 기록

했다. 5경기 연속 무실점한 오승환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2.22에서 2.13으로 떨어뜨렸다. 오승환은 2-4로 끌려가던 7회말 1루수 두 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첫 타자 브룩 홀트를 상대로 8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불넷을 내졌다. 이어 블레이크 스워트와 크리스티안 비스케스를 삼진으로 처리했다. 오승환은 2시후 재기 브래들리에 게 안타를 맞고 실점 위기에 놓였지만, 앤드루 베닌테타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토론토는 4-6으로 패했다.